

창의적 호칭으로 인식 바꾼 “이런 직업”

커피마스터... 프레시 매니저... 샌드위치 아티스트

잘 지은 직명 업무 능력 도움
직무에 자긍심, 주인의식 UP
고객 인식·태도변화 이끌어

직무의 본질을 반영한 창의적인 호칭으로 직원 사기 진작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잘 지은 창의적인 직명은 직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업무 능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브랜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힘이 있다. ‘고객 갑질’ 논란이 빈번한 요즘,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태도 변화는 ‘딴’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체계적인 내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커피마스터로 인정해 준다. 커피마스터들은 지역커피마스터를 거쳐 커피대사(엠베서더)에 도전할 수 있다. 스타벅스 직원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커피마스터’나 ‘커피대사’라는 특별한 직함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목표 의식



스타벅스 커피마스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과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커피대사는 스타벅스 진출 국가별로 가장 우수한 커피지식과 열정을 보유한 파트너를 선발하는 ‘스타벅스 커피대사 선발대회(엠베서더 컵)’에서 최종 우승한 직원 한 명에게만 부여되는 만큼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커피대사가 되면 1년의 임기 동안 커피 농가 및 스타벅스 미국 시애틀 본사 방문 등 해외 연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들과의 교류까지 글로벌

커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야쿠르트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야쿠르트 아줌마’의 명칭을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로 변경했다. 한국야쿠르트의 상징과도 같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지난 1971년, 47명으로 최초 활동을 시작했다.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성실함으로 1975년 1000명, 1983년 5000명, 1998년 1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대표 방판 조직으로 성장했다.



프레시매니저

/한국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는 신선함을 뜻하는 ‘프레시(Fresh)’와 건강을 관리해주는 ‘매니저(Manager)’를 합친 단어다.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며 고객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뜻을 담았다. 한국야쿠르트는 대대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방문판매 채널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선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한국야쿠르트는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난 1994년 서울 광진구청과 손을 잡고 시작한 ‘홀몸노인 돌봄활동’은 현재 전국 61개 지자체와 연계해 3만여 명의 홀몸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확대

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써브웨이는 매장에서 손님 주문을 받아 샌드위치를 만드는 직원을 ‘샌드위치 아티스트’라고 부른다. 각기 다른 고객의 주문을 받아 누구라도 균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직명이다. 샌드위치 아티스트는 샌드위치 제조 외에도, 빵, 채소, 고기 등 기본 식재료의 손질과 관리, 매장 위생, 고객 응대까지 담당하는 써브웨이의 ‘얼굴’이자 ‘핵심 일꾼’이다.

써브웨이는 샌드위치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써브웨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써브제머(Sub jamers)’ 대회가 대표적이다. 써브제머는 전 세계 써브웨이 매장에서 근무 중인 샌드위치 아티스트들의 업무 숙련도를 평가하는 경연대회다. 30cm 크기의 풋 롱 샌드위치를 60초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을 평가한다.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써브제머 대회 수상자에게는 세계대회 참가와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새 공부보단 차분하게 정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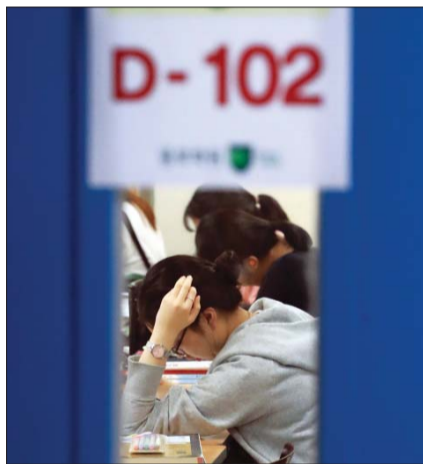
가까워진 수능, 전략은

11월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이 100일(8월6일) 가까이 다가왔다. 현재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한 달 가량 밖에 남지 않았고, 수시 원서접수(9월6일~)도 곧 시작되기 때문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 간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수능 당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며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 학습 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상위권 수험생은 이미 자신의 약점 및 출제되는 문제 유형 파악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문제풀이의 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일 것이다. 이러한 상위권 수험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권에서는 한 두 문제로 수능 등급과 대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문제를 풀이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중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



/연합뉴스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비슷한 개념과 유형의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이런 학생들은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보다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다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문제해결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학습의욕이 더욱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Back to Basic’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고, 또 정리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우 평가팀장은 “교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기본기가 구축돼야 응용력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국내 제약기업, 우즈벡 시장 진출 ‘청신호’

우즈벡 16개 사절단과 협회 방문
보건의료 전반에 사업 협력 논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갖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즈벡 정부 관계자와 현지 16개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오는 12일 서울 방배동 협회를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2~14일 방한하는 우즈벡 사절단은 첫째 날 주요일정으로 협회를 방문, 협

회와 보건복지부 및 우즈벡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우즈벡 시장 진출 포럼 및 비즈니스미팅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즈벡 시장 및 현지화 우대 정책 소개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양국 정부 간 협력(G2G)을 토대로, 지난 5월 협회와 우즈벡 보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연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MOU는 민간 실무협업체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의 우즈벡 시장 진출 및 현지화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협회는 원희목 제

약바이오협회장과 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등이 그간 진행한 협의에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우즈벡 사절단은 주라벡 레버레토리스, 무타바 메디칼 스탠다드 등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리스팀 페르가나, 메드프로텍트 테크놀로지 등 의료장비 제조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 협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공기관 상반기 채용 “연 목표달성률 63%”

신규채용 1만5640명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만56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만5347명보다 소폭 늘면서 올해 전체 목표 대비 6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 O’에 공시된 ‘공공기관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분석, 1일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에 공시된 올해 1분기 신규채용인원은 총 6918명이었다. 상반기 총 채용인원 1만564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2분기 신규채용인원은 8722명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분기

보다 약 26%나 늘어난 규모다.

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총 2만5000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인원은 올해 목표 채용 대비 63%에 달해 이미 과반을 상회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상반기 결원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채용 규모가 상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공기관 총 신규채용 인원은 목표치인 2만 5000명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총 3만3900명으로 역대 초유의 숫자를 기록한 바 있다.

/손현경 기자

상반기 알바 평균 시급
법정시급보다 531원 ↑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업종 중 시간당 1만8800원대의 시급을 받은 ‘피팅 모델’의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올 상반기 동안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업종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알바시급은 평균 8881원을 기록, 법정 최저시급보다 평균 531원이 더 높았다.

지난해 2분기 알바몬이 발표한 평균 시급 8195원보다는 686원이 높은 액수였다.

/손현경 기자